

프로젝트의 수임

연남동 「STEP」은 94년 10월부터 작업이 시작되었다. 건축주로부터 이 프로젝트를 설계수임 받는 순간 가벼운 흥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프로젝트가 특별히 기념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거나 독특한 기능이 들어있는 그런 것이어서가 아니라 이제까지 다루어 왔던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 지극히 평범하고 작았기 때문이다.

오랜기간 동안—공간연구소 시절을 제외하고는—참으로 다양하고도 대형인 프로젝트를 많이 다루어 왔었다. 사실 필자는 공간연구소 시절 김수근씨 휘하에서 공간사옥을 다루면서 건축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공간사옥의 계획단계부터 건축물이 완성되고 마지막으로 마당에 삼층석탑을 세우기까지 전과정을 통하여 김수근씨와의 대화로 집이 완성되어 갔으며 대화속에서 그의 건축관을 읽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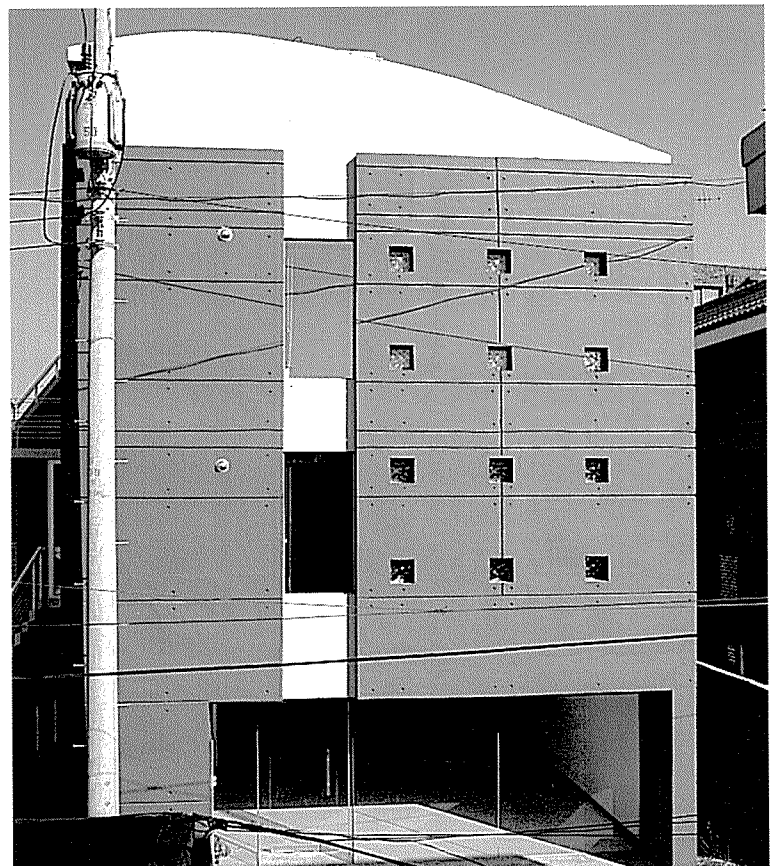
청년기 시절 필자는 일 욕심에 공간연구소와는 다른 경험에 욕심이 생겼고 1년간의 방황끝에 정림건축에서 설계를 시작했다. 이 곳에서는 상당히 다양하고도 규모가 큰 프로젝트들을 다루게 되어 공간연구소이후 작은 프로젝트는 다룰 기회가 많질 않았다. 대학교 마스터플랜, 은행본점, 방송국, 도서관, 대학극장, 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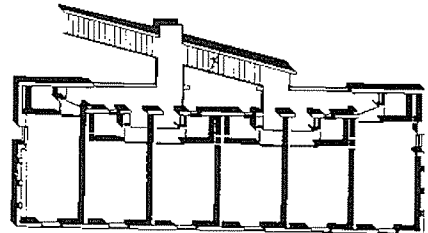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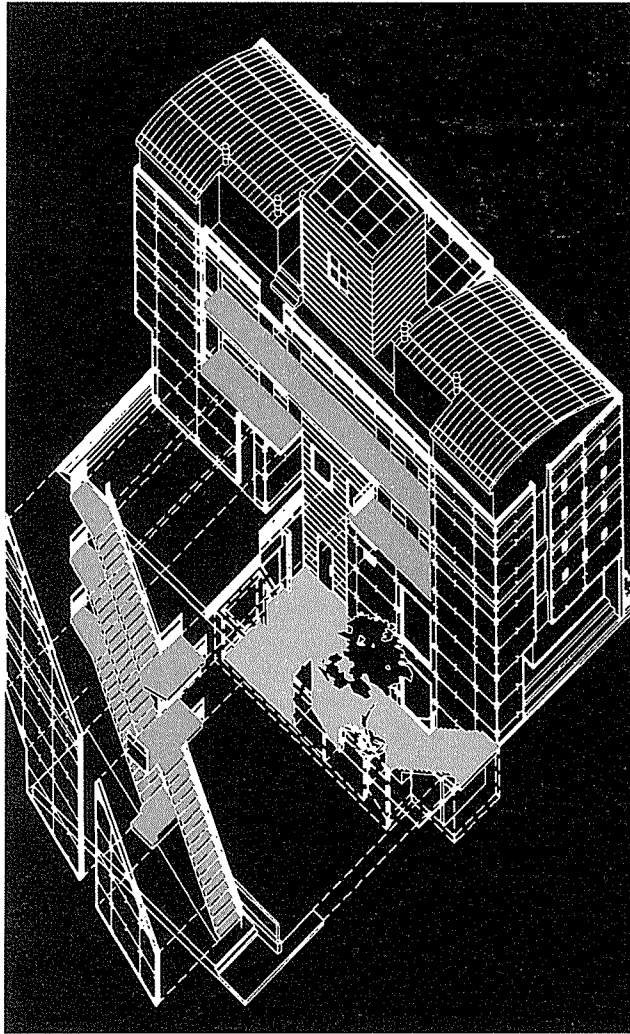
포츠시설... 등에서부터 정림시절의 마지막 작품인 대덕과학문화센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만져지고 완성되어졌다. 이때는 실로 어떤 프로젝트라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패기와 정열과 자신감이 가득차 있었다.

연남동 「STE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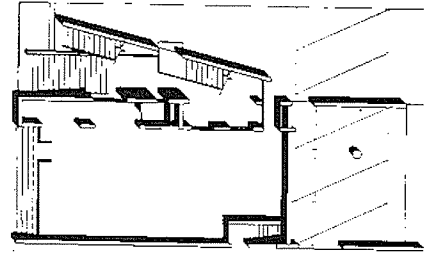
Yun-nam dong STEP

방철린 / (주)인·토종합건축사사무소
by Bang Chul-Lin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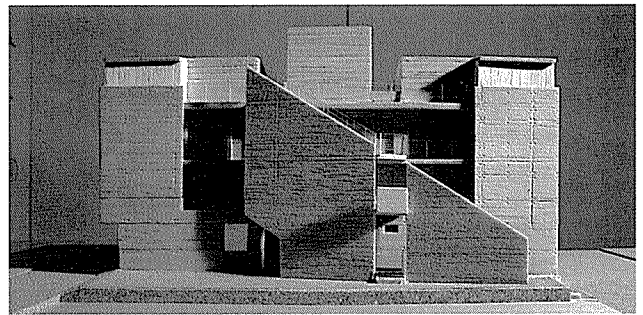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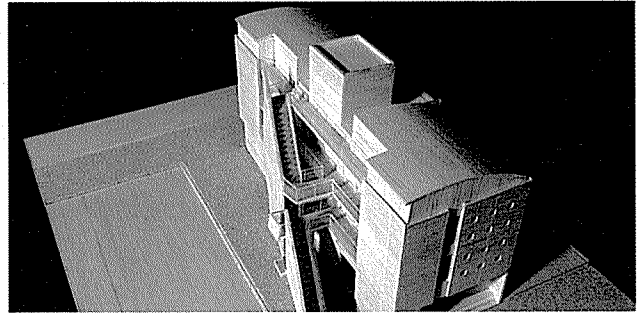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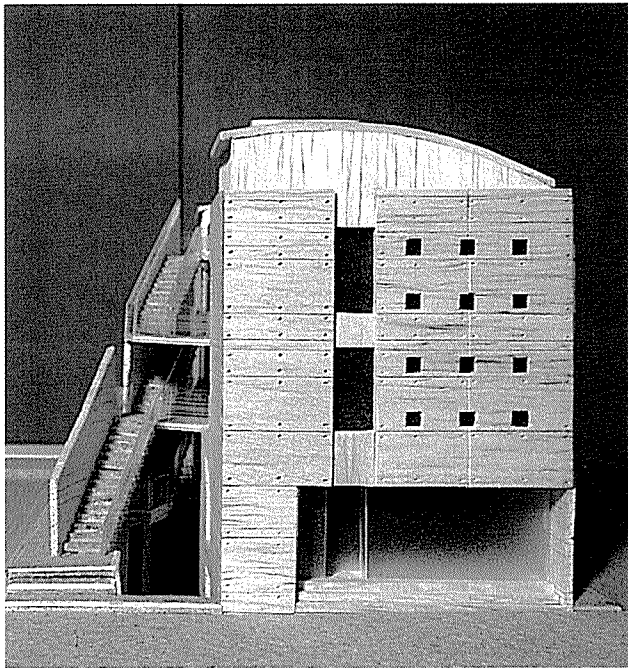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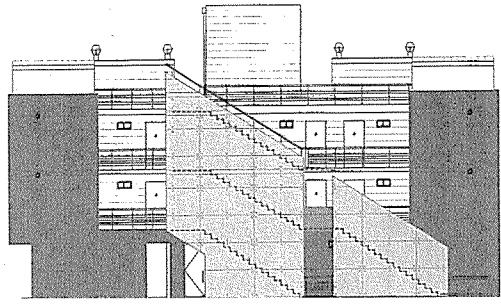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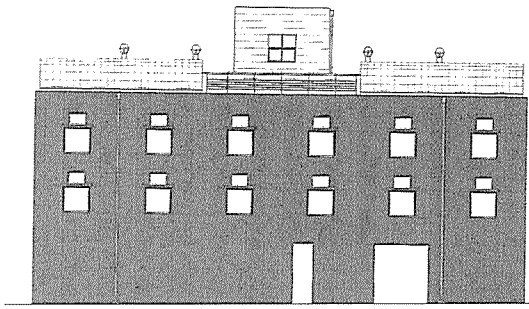
이 무렵 건축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 눈을 열게 된 것은 4·3그룹의 활동인 것 같다. 건축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창작을 하는 동료건축가들과 대화와 활동을 통해서 건축의 새로운 세계를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극히 보편적이고도 작은 프로젝트들을 값있는 인간환경으로 철저히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건축설계자의 임무란 생각은 청년기 시절부터 갖고 있었지만 진실된 건축은 어디에 있는가? 건축의 진실은 무엇인가? 건축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하는 건축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들이 나를 괴롭혔다.

평범한 다가구 주택인 연남동 「STEP」은 이 프로젝트를 만나는 순간 정말 매력있는 프로젝트로 내게 다가왔다. 건축주와 시공자의 다가구주택에 대한 이미지가 집장사의 그것으로 머리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고정관념속의 다가구 주택의 이미지를 과연 바꾸어 놓을 수 있을만큼 살찌운 내용물로 채울 수 있을까?가 관심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이기도 했거니와 정립시절 이후 몇년새에 관심을 가지고 정성스레 다루어 보았던 몇개의 주옥같이 생각했던 작은 프로젝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거의

유산이 되고 말아 작품이 페이퍼워크로만 남는 것을 안타깝워 하던터라 더욱더 그러했다.

핍박한 주거지역

건축주와 만나 요구사항을 들어본즉 이곳이 대학 주변이어서 원룸시스템의 다가구주택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지나는 행인이 많으니 1층은 편의점이 좋겠다는 것, 그리고 지하는 건축주 자신의 사무실로 쓸 계획이라는 이야기였다. 부지를 답사하여 본 결과 이 연남동 「STEP」의 부지는 인위적으로 개발된 다른 평범한 서울의 주거지역내의 택지와 다름없었으며 비교적 통행이 많은 동네입구에 면한 두번째 부지임을 확인하였다. 마을을 둘러 보았으나 뚜렷한 성격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주거지역으로서의 특별한 특징도 없이 그저 주택들로만 뻗뻗하게 차 있었다. 30여년전, 도시나 주거지역에 대한 아무런 의식이 없는 무리들에 의해 생각의 깊이없이 개발된, 그래서 길과 택지와 몇몇 공공시설만이 동네의 형성요소 전부이고 그 이외의 공동체적 생활을 위한 인간적이고도 핵심적인 시설은 눈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무성경 무특징의 동네였다.



연남동에서 보듯 우리의 현대 도시구조 특히 주거지역의 도시구조는 너무나 뾰박하다. 개개인의 인간다움도 존중되어 있지 않거니와 공동의 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되어 있지 않고 인간의 공동으로 사회를 이루고 있다는 암시도 빈약하다. 차라리 전통적 주거지에서 공동체적 의식을 느낄 수 있는 장치들이 발견됨을 볼 때 현대사회가 얼마나 문명에 얽매어 비인간적인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를 알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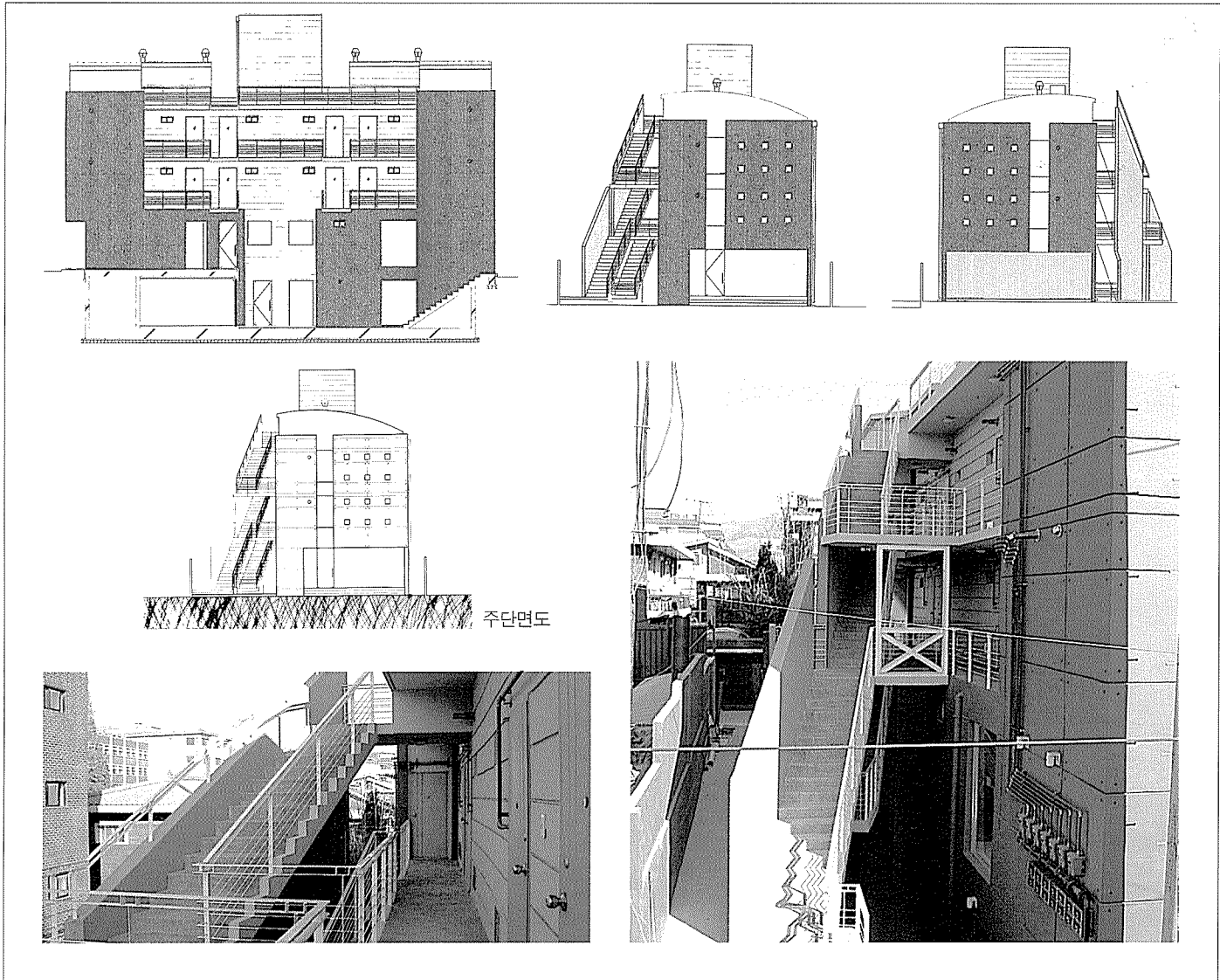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가 있는 마당, 골목 중간 중간 머물러 대화를 할 수 있는 넓은 공간들, 빨래터, 장터... 이곳에 사는 이들도 개개의 주거에서 삶을 영위하면서도 마을의 공공장소에서 이웃과 함께 호흡하고 이웃을 서로 느끼며 삶을 살아간다. 이들 공간들은 대부분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기 보다 자연발생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생활속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장소가 세월을 두고 선택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더욱 더 오랜시간 보존 유지될 수 있는 것 같다.

잉카문명의 마추피추 공중도시는 우리의 도시개발 결

과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훨씬 치밀함을 보여준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들 도시 중앙에 배치하고 그 주변을 4등분하여 기능별 조닝(Zoning)을 한다. 신전, 지배계급이 사는 주거지, 공공시설, 피지배 계급이 사는 주거지 등이 산세에 따라 적절히 배치되고 이들의 성격에 맞게 가로계획이 치밀하게 이루어져 있다. 좁은 골목은 때론 넓은 광장과 연결되기도 하면서 생활속에서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 이곳 잉카문명은 다양한 신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이어서 인간은 존중되지 않았음직 한데도 우리의 도시보다 훨씬 인간적이다. 500년후 문명시대로서의 우리의 도시는 어떤가? 신도 인간도 찾기힘든 무기질이 아닌가?

도시에 밀착된 주거

우리에게 주거가 단순한 피난처의 개념에서 뿐 아니라 복합적이고도 심미스런 의미와 기능을 갖게 된것은 원시주거에서 부터의 일일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고대주거지에서 주거가 인간 그리고 주변환경과 밀착되어 있으며 서로 의미 있는 관계가 유지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다시말해서 어떤 지역의 주거가 다른 환경에 옮겨



졌을 때 그 환경에 쉽게 적응될 수 없을만큼 특수해적 요소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주거건축은 그것이 있는 환경에 속하게 함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남동 「STEP」은 200평이 채 안되는 조그만 주거시설이지만 이 건축물이 놓이게 될 대지주변의 주거지역으로서의 도시적 여건이 팽박하여 이웃을 느낄만한 공동체적 요소들이 전무함을 감안할 때, 그리고 이 건축물에 여러 가구가 함께 살아야 하는 다가구 주거기능외에도 그런 생활시설로서의 사무실과 Shop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건축의 규모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출입될 것을 감안할 때 더욱더 이 작은 건축물이 도시속에 속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와 주거사이를 잇는 건축적요소가 필수적으로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도시와 주거가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적 공간요소가 도시와 주거 사이의 급격한 변화를 막아주는 완충역할과 세대간의 대화의 장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도시의 경계에서부터 각세대에 이르는 과정 - 이 과정의 건축적인 도구인 계단과 복도는 단순한 기계적 통로

의 개념뿐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축적 산책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산책로 위에서 이웃을 만나기도 하고 다른층에 있는 이웃과 눈인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 산책로는 전층에 시선이 닿을 수 있도록 계획 되어졌다. 그래서 이 계단은 이집의 중심공간 역할을 한다. 좁은면적의 공간이지만 이곳은 빛이 지하1층까지 떨어진다. 각 세대로 드나드는 길로서의 계단, 중심공간으로서의 계단은 모든 부분이 항상 밝다.

좋은 건축을 만든다는 것, 건축이 인간적이라 하는 것, 무엇으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재료, 인간적인 형태, 이것들이 과연 건축을 인간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재료나 형태와 같이 겉치레적이고도 가식적인 처리보다 건축적 공간과 형태의 순수성과 진실성 속에서 참된의미의 인간이 발견될 수 있고 그런 건축이 좋은 건축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건축속에서 순수성과 진실성이 발견될 때 그 건축은 인간을 위한 참된건축이 되리라.